

청문회 시작도 전에... 여야 '조국 대전'

야, 조국 '사노맹'·한상혁 '가짜뉴스 발언' 놓고 지명철회 요구 여 "문제 없다" 철벽 엄호... 靑,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8·9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장호 후보자 흡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야당의 '집중 검증 타깃'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조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한 것을 '낡은 색깔론', '흑색선전'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여론전을 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과 관련한 낡은 색깔론 카드를 꺼내든 것을 보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 등 버리는 것에도 서둘러 차근차근을 쳤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온당한 일이나"며 "방통위위원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날 말 줄줄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 대비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송곳 검증을 베풀고 있다. 또 한국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거듭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노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 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 "정부 정책 전환하면 협조"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터리를 이슬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며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

사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를 전격 교체했다. 수석 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경기 안산 단원갑) 의원이, 대변인에 초선의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기존 대변인 가운데 민경욱 의원은 교체됐고, 전희경 의원은 유임됐다. 초선 의원 두 명으로 운영하던 당 대변인단을 재선의 수석 대변인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보강한 것이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재선의 이현승(부산 진구을) 의원에서 재선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의원으로 교체됐다. 정치권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침체된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로 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관정 '日 대응' 머리 맞췄지만 산업-노동계 '이견'

당정 "예산 2조원+ α" 편성 산업계 "근로시간 유연적용해야" 노동계 "일방적 회색 강요 안돼"

여야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4일 '민관정 협의회' 두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핵심 관계자가 모두 모였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경제계 인사로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승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순환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이날은 참석해 노동계까지 자리를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일본 대응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1조원보다 1조 이상 증액한 '2조원+α'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



'긴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며

"그러나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 혁신위 "새 지도부 구성해야"

최종 혁신안 제시...당권파 "일방 주장 의미 없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첨병대 역할을 해오던 혁신위원회가 14일 순학규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최종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15일 활동 기간이 이만료된다. 하지만 비당권파 성향의 혁신위원들은 지도부 교체를 바라는 당내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성격의 기구 구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당권파 참여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현직 지역위원장이 함께하며 당권파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연석회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바른정당 출신 인사는 "혁신위가 해오던 역할을 이제는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때"라고 "몇몇 의원들끼리는 향후 전략들을 논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순학규 선언'의 맞불 차원으로 비당권파인 안철수·유승민계가 공동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이날 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혁신안을 일부 세력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는 2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권파를 정조준한 높은 수준의 비판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권파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지난달 중반 혁신위원장 사퇴로 혁신위는 당헌·당규상 이미 생명이 끝난 상태였다. 경도된 시간만 가진 일부 혁신위원들의 일방적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7개 정당 3분기 국고보조금 106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106억8825만원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분액은 민주당이 33억9913만원(31.80%)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32억5524만원(30.45%), 바른미래당 24억6547만원(23.07%), 정의당 6억8213만원(6.38%), 민주평화당 6억

3685만원(5.96%), 민중당 2억3801만원(2.23%), 우리공화당 1140만원(0.11%) 순이었다.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